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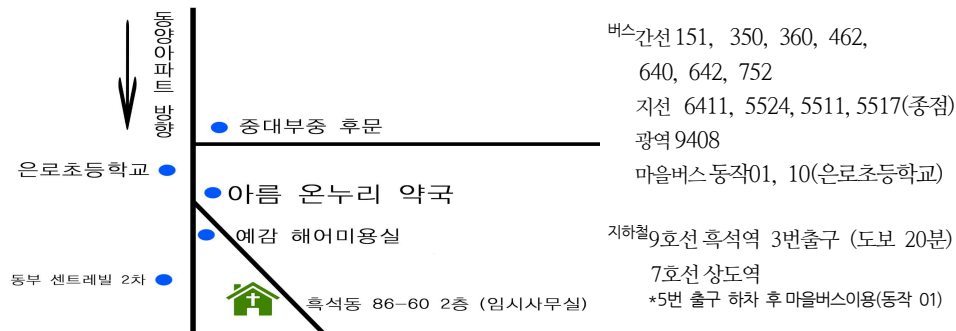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주일 오전 11:0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저녁기도회	월-목요일 저녁 8:0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1: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8:00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1:00
금 요 기도회	금요일 저녁 8:30	청 소 년 부	오후 1:00	마리아회	오후 1: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1:00
	*월삭새벽예배 6:00			에스더회	오후 1:00
셀 가족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파 송 선 교 사	강성규 (러시아)
			전임전도사 김 진 만	협 력 선 교 사	양 병 순 (카자흐스탄)
			전임전도사 권 인 혁		이 금 주 (M국)
			협력전도사 오 호 남	국 내 선 교 사	오 인 숙
장	로	유 신 웅 (집사장)			
		김 대 희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박 희 태		(2호) 세종 선한교회	
		조 윤 익		신원섭 목사	
		한 배 선			

선한교회 사무실 오시는 방법



06987 서울 동작구 서달로 110-10 2층 (흑석동 86-6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 5:16)

Walk By The Spirit

실 천 사 항 선교사의 삶 제자삼기(1인) 성경강론(1장)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암 송 구 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26)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오전 예배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원	인도자		
찬양과경배	26장 (통일찬송가 14장)		
교독문	교독문 23번(시편 43편)		
찬양과경배	370장 (통일찬송가 455장)		
예배기도	박희태 장로		
찬양	드림성가대		
말씀봉독	갈라디아서 3:19~29		
설교	율법은 무엇인가? (임춘배 담임목사)		
헌금드림	조계승 지영 편도선		
환영및광고	인도자		
파송의노래	주를 위한 이곳에		
축도	임춘배 목사		
송영	드림성가대		
성도의교제	다함께		

수요일 예배	오후 8:00		예배장소 : 교회 사무실	인도자 : 임춘배 목사
말씀봉독	아론자손과 레위인 (민수기 18장) 임춘배 목사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1. 전교인수련회	장 소 : kobaco 연수원 (경기도 양평) 기 간 : 2017년 7월 30일(주일)~ 8월 1일(화) 강 사 : 원주희목사(샘물호스피스선교회 회장) *예배후 준비위원 모임이 있습니다. *수련회 참석 여부 체크 부탁드립니다.				
2. 매일성경강론	매일 저녁 8시 성경 강론과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주보에 성경 강론을 위한 참고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사용과 참여를 바랍니다. (월~금 주5일)				
3. 정오기도회	매일 점심(12시30분)에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전건축을 위한 기도문을 이용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체크하고 계시는 "기도문 읽기표"를 입당예배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배준비안내및정리	각 셀별로 돌아가면서 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예배준비 및 안내가 있고 청소 및 정리는 2시 30분 부터입니다. 오늘은 강북,강서셀 에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서초,인천셀 입니다. (정리 후에는 식당문을 잘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성경강론 범위						
7/9	7/10	7/11	7/12	7/13	7/14	7/15
	민수기 16장	민수기 17장	민수기 18장	민수기 19장	민수기 20장	
※매일 저녁 기도회 : 월~목 저녁 8시(교회 사무실), 금요일 8시 30분(서울남부교회 4층)						
※매주 성경통독 내용과 암송구절은 주보를 참조.						

한주간의 기도제목	예배처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기쁨과 감사로 흘러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기를 담임목사님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날로 더하시기를
--------------	---

가정예배

“ 너와 함께 하리라 ”

찬송 :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통 359)
본문: 여호수아 1장 5~6절
말씀 : 여호수아에게 평생 능히 당할 자가 없었던 까닭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 앞서 행하셨습니다.(신 31:8)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가나안 주민들이 두려워 떨게 하셨습니다.(수 2:9) 여호수아 24장은 결국 가나안땅을 정복하고 승리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둘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6일간 돌고 제7일에는 일곱 바퀴를 돌았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고 여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에서는 아간의 불순종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할 때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어도 실패합니다.

셋째, 여호수아가 젓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 만사를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6절) 가나안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이었습니다. 그곳으로 갈 때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갈 때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해주셨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지배하는 땅은 이 세상이며 광야는 교회였습니다.(행 7:38) 약속의 땅 가나안은 천국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 천국을 향하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빌 3:20)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신자와 함께하십니다.

넷째, 성령이 충만한 여호수아와 함께하셨습니다.(민 27:18)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은 바로왕과 그 신하들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신약에서도 성령 충만한 스테반을 유대인들이 능히 당해내지 못했습니다.(행 6:10)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상황에 따라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의 기념비엔 그의 유언이 새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이다”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홀로 가면 실패합니다. 나 홀로 가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할 때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할 때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할 때 사단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이 땅에 의지할 자가 없고, 바라 볼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해주시니다.
출처 :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은혜의 말씀

제목 율법은 무엇인가? (갈3:19-29)

서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율법은 왜 주어진 것인가?

- 본론
- 1. 율법의 목적
 - (1) 율법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 준다.
 - (2) 범법함을 인하여(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더하여 진 것이다(19).
 - (3) 율법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21-22).
 - (4)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24).

- 2. 교훈
 - (1) 나는 명백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은혜)이 꼭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자.
 - (2)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살자.
 - (3) 그리스도로 옷 입자(27).

결론 율법아래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박희태 장로	한배선 장로
헌 금 위 원	조계승 지영 편도선	김미숙 김은정 김혜선
안 내	강북, 강서셀	서초, 인천셀

매일 성경 강독		지도력예의 도전		날짜 : 7월 10	
찬양		웁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송가 516장/통일 찬송가 265장)			
통독		민수기 16장			
본문 내용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 회중의 지도자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도전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고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욕심내는 고라 무리를 꾸짖으며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사람을 보여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아론과 고라의 무리에게 각기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그들의 장막으로부터 떠날 것을 경고합니다. 모세는 자신을 보내 일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땅이 그들을 삼킬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모세의 말이 끝나자마자 땅이 갈라져 반역하던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버립니다. 이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 분향하던 지도자 250명을 모두 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백성 사이에 염병이 시작돼 1만 4,700명이 죽습니다.			
생각해보기					
1		고라 일당의 반역 (1) 레위 지파의 고라와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 온이 모세와 아론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킴 (2) 각기 제사장직과 정치적 주도권(장자치파)을 차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3). (3) 하나님께서 반역의 무리와 이스라엘 회중을 분리하라고 지시하시고 땅을 갈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물건들을 삼키고 분향하던 이백오십 인을 불로 소멸하심 (4) 스스로 자신을 높이거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임에 불만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자.			
2		백성들의 원망과 아론의 속죄 (1) 고라 일당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을 당하자 백성들이 그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려 원망함 (2) 하나님께서 염병으로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함 (3) 아론이 범죄한 백성들을 위해 속죄하자 염병이 그쳤지만 만 사천칠백명이 죽임을 당함 (4)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지도자들에게만 돌리지 말고 각자의 책임으로 여기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			
핵심 단어		분수에 지나도다(3절) (라브라켄) - 직역하면 '너희가 너무 많이(소유 하였다)'이다. 즉 반역자들은 모세와 아론이 지나치게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이들은 아론 및 그의 후손들에게만 제사장직이 부여된다는 사실에 대해 도전했던것 같다. 그리하여 레위지파 족속인 고라는 아론의 종교적 통솔권을 탐냈던 것 같고, 르우벤 지파 소속인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의 정치적 지휘권을 욕심냈던것 같다. 따라서 결국 고라 일당의 이 말은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의 정치 및 종교적 지휘권을 내놓으라는 협박조의 말이라 할 수 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셀 모임 나눔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찬양과 기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359장/통 401장)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한국 교회 초창기에 황해도 재령동부교회(1895년 설립)에 정찬유 장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가난했지만, 열심히 십일조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십일조라도 제대로 하고 살자고 생각해, 철저히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건축 자재상을 하며 알뜰하게 생활하고 돈을 모았는데, 그때 마침 건축 붐이 일어나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새로 지으려고 생각하다 교회가 마음에 걸려 교회를 먼저 짓기로 하고, 자신의 전 재산인 당시 돈 3만 원을 봉헌했습니다. 이 금액은 요즘 가치로 환산하면 20억 원이 됩니다. 교회 건축이 끝나고 교인들은 장로님이 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 교회 머릿돌에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그 후로는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교인들이 놀라서 장로님을 찾아갔더니 “나는 지금까지 주님이 주인인 교회에 나갔는데, 사람이 주인인 교회에는 나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교인들은 모여 다시 이름을 고치고 머릿돌에 있던 장로님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 후로 교인들은 장로님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이 교인들에게 존경받은 이유는 그가 봉헌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장로님 안에 계시므로 교인들이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그분의 영적 권위에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충성을 다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재물이나 명예가 먼저인가요, 예수님이 먼저인가요?	
말씀 나누기	민수기 27:12~23	
묵상포인트	누구나 인생의 사명이 다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면서도 뒤에 남은 사람과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잇는 차기 지도자로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인 여호수아를 지명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백성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 되기 위해 거룩한 삶은 필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분의 아름다운 일을 맡기시기 위해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를 찾으십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모세의 뒤를 이을 후계자는 누구며, 하나님은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적용하기	직장 또는 교회 공동체 등에서 내가 하던 일(사역)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때, 누구를 추천하고 싶나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함께 기도하기	모세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여호수아처럼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모세와 여호수아 같게 하시고, 사회 지도자들이 주님 뜻에 합한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성경 강독		모세의 불순종	날짜 : 7월 14일
찬양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찬송가 351장/통일 찬송가 398장)		
통독	민수기 20장		
본문 내용	이스라엘 백성은 신 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어 모세와 아론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 명령해 물을 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반석을 두 번 쳐서 불순종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모세는 에돔 왕에게 형제 관계임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의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에돔 왕이 완강하게 거절함으로 그들은 돌이켜 호르 산으로 향합니다. 호르 산에서 아론의 옷을 벗겨 엘르아살에게 입히자 아론이 운명합니다.		
생각해보기			
1	므리바 사건 (1) 므리바 사건은 모세의 ‘가나안 입국 금지’라는 비극을 불러 일으켰다. (2) 이 사건의 원인은 백성들의 고질적인 불평과 원망에서 비롯되었다. (3)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격정을 제어하지 못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결과 그 동안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입성을 금지 당하고 말았다. (4) 다른 사람들(특히 영적 지도자들)을 격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5)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는 결코 자신을 내세우거나 감정에 따라 일을 처리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에돔과의 협상 (1)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단 동편을 통해 가나안 입성하려면 반드시 에돔 족속의 영토를 통과해야 했다. (2) 에돔왕은 모세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부하며 무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의 진로를 차단함 (3)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신2:1-8) 에돔 족속과 충돌을 피하여 순순히 우회함 (4) 내 편의를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		
핵심 단어	이곳에는...없고 ...없고...없고...없고...없도다 - 백성들이 머물렀던 가데스는 그들의 말대로 모든 것이 절대 부족한 상태였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육신적인 눈으로 그곳을 바라본 것에 불과하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곳은 모든 것이 넘치는 충만의 장소였다. 즉 그들에게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있었으며 계약 백성으로서의 미래가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부정적인 발언은 결국 그들의 불신앙에서 나온 말에 불과할 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허락하실 것이라 하셨지, 그들의 말대로 ‘죽음의 땅’을 약속하신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출 3:8;13:5). 그러므로 참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현실에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다(히 11:1).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아론의 지팡이	날짜 : 7월 11일
찬양	나의 죄를 정결 하사 (찬송가 320장/통일 찬송가 350장)		
통독	민수기 17장		
본문 내용	모세는 각 종족의 지도자로부터 지팡이 한 개씩, 모두 열두 개의 지팡이를 취합니다. 지팡이마다 각 지파 지도자의 이름을 써서 언약궤 앞에 두게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는 표징으로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립니다.		
생각해보기			
1	아론의 싹난 지팡이 (1) 아론의 제사장직이 신적 권위에 의해 주어진 직분임을 확연하게 밝히기 위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는 이적을 베푸심 (2) 지팡이는 목자나 여행자가 사용하지만 통치자에게는 권위의 상징이다. (3)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와 증거궤 앞에 두게 하고 홀로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에 보관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으로 삼음 (4) ①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사역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보충이 되어 주신다. ②연약한 백성을 사랑하셔서 범죄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섭리하고 계신다. ③하찮은 막대기와 같이 무능력하고 쓸모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러 쓰시면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2	두려움에 떠는 백성 (1)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신 이적을 본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 (2) 백성들은 그들에게 미친 재앙과 싹 난 지팡이 이적을 보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노력을 시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들을 멸망 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자로 여김 (3) 하나님의 백성은 신앙생활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하심을 확신해야 한다.		
핵심 단어	가문(1절) (마테) - 이 말의 원 뜻은 '나무가지'로서 한 그루 나무에 여러 개의 가지가 돌아나는 상태를 두고 상징화한 말이다. 즉 동일 조상에서 갈라진 여러 집안이란 뜻을 나타낸다. 한편, 그런데 본절에서는 그 의미상 '가문' 보다는 '지파'로 번역함이 더 정확하다 지팡이(1절) (마테) - '가문'과 동일 어근에서 유래한 말이다. 한편 지팡이는 여행자나 목자의 호신용 또는 도보용으로 사용했던 막대기이며, 때로는 통치자의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홀' 및 지도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휘봉을 가리키기도 했다. 여기서는 지도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기구로 봄이 옳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러한 지팡이를 통해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다. 본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참 제사장 지파를 가려내시려는 방편으로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셨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아론 자손과 레위인	날짜 : 7월 12일
찬양	어둔 밤 쉬 되리니 (찬송가 330장/통일 찬송가 370장)		
통독	민수기 18장		
본문 내용	제사장들은 성소와 제단에 관한 직무를, 레위인들은 회막에 관한 직무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자손에게 제사장직을 선물로 주시고, 그들을 돕는 자로 레위인을 붙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을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으로 주십니다. 거제물, 요제물, 첫 수확물, 모든 생물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을 성소의 세겔로 환산해서 그들의 몫으로 주십니다. 이는 아론의 자손을 위한 영원한 소금 언약입니다. 레위인은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주셔서 회막에서 일하는 그들의 수고를 보상해 주십니다. 레위인은 백성에게서 받은 십일조에서 또 십일조를 떼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는 제사장의 몫입니다.		
생각해보기			
1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 (1)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경험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까이 나갈 수 없었다. (2) 제사장이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며 제사를 드렸다. (3) 죄인들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2	제사장과 레위인의 분깃 (1)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함으로 다른 지파처럼 기업을 분배받지 못함 (2)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바친 거제와 요제물, 곡식의 첫 열매와 짐승의 첫 새끼를 자신들의 몫으로 받음 (3) 이스라엘이 바치는 십일조는 레위인의 몫이었고 그 십일조의 십일조는 제사장의 몫 (4) 교회는 사역자들이 복음만을 위해 일하도록 도와야하고, 십일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돌려 드릴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핵심 단어	나는...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20절) -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종종 '나는...이다'(I am...)라는 말로써 당신을 구체적인 실체로 형상화하셨다(창 15:1;시 18:2;요 14:6).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당신은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깃'이요 '기업'이라 계시하시면서, 그들에게 오직 당신만을 섬기며 의지할 것을 당부하셨다. 이에 대하여 주석가 마시우스(Masius)의 다음과 같은 말은 딱 인상적이다. "여호와를 '섬기는'(cultus) 일이야말로 진정 토지를 '경작하는'(cultus) 일보다 훨씬 생산적인 일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정결하게 하는 물		날짜 : 7월 13일	
찬양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송가 257장/통일 찬송가 189장)			
통독		민수기 19장			
본문 내용		정결케 하는 물은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만듭니다. 흙이 없고 멍에를 맨 적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 제사장이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해 일곱 번 뿌린 후 불사릅니다. 암송아지의 재는 진 밖 정결한 곳에 보관했다가 속죄제의 재료로 사용합니다.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 사람은 3일째와 7일째 되는 날에 정결케 하는 물과 그 재를 뿌려 스스로 정결케 해야 합니다. 부정한 사람이 스스로 정결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기 때문에 백성으로부터 끊어질 것입니다.			
생각해보기					
1		시체와 접한 자의 정결법 (1)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40년 동안 모두 죽도록 되어 있어 백성들은 자연히 시체에 접촉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게 됨 (2)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자를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제조법 ①흙없고 멍에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제사장이 진 밖에서 잡음 ②손가락에 피를 찍어 회막 앞에 7번 뿌리고 그 송아지와 함께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섞어 불사르도록 함 ③정한 자로 하여금 암송아지의 재를 취하여 진 밖에 보관함 ④이 재를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로 그 물을 찍어 부정한 자나 물건에 뿌림 (3) 시체를 만진 자는 제3일과 7일에 이 갯물로 정결케 함 (4) 이 정결 예식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부정으로부터 정결케 하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역을 예표함 (5) 죄를 방조하지 말고 회개하며 우리를 깨끗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한다.			
핵심 단어		흐르는 물 - 직역하면 '살아있는 물'이란 뜻인데, 곧 '신성한 물'을 가리킨다 <레14:5;15:13>. 이는 죽음의 권세를 몰아내는 예수님의 영생의 생수를 상징한다(요4:14;7:38, 39). 그러므로 불사른 암송아지의 재를 이 물 속에 섞는 본질의 행위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근거하여 죄인이 정결함을 얻고 또한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예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